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주일 (7월 5일)

고승익 크리스토폴

화답송 : 시편 31(30), 3ㄴㄹ-4.6과 7ㄴ과 8ㄱ.17과 21ㄱㄴ(© 6ㄱ 참조)

(후렴) 주 님, 제 목 숨 당 신 손 에 말 기 나 이 다.

<p>1.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2.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3.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p>	<p>저를 구원할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p>	<p>성채 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구하소서.</p>
--	---	--

<p>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p>	<p>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사람들의 음모에서</p>	<p>이끌어 주소서. 즐거워하리이다. 구 해 내 소 서.</p>
---	--	---

연중 제15주일 [가해]

고승익 크리스토폴

화답송 : 시편 65(64), 10-11. 12-13. 14 (© 루카 8, 8)

(후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1.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2.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3.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4.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환성을	울리며	노래 하나	이 다.

연중 제16주일 [가해]

화답송 : 시편 86(85),5-6.9-10.15-16ㄱ(© 5ㄱ)

고승익 크리스토폴

(후렴)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1.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2.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3.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연중 제17주일 [가해]

고승익 크리스토폴

화답송 : 시편 119(118),57과 72.76-77.127-128.129-130(© 97ㄱ 참조)

(후렴)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 하나이다.

1.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2.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3. 저는 당신 계명을
4.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 하나이다.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웁니다.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미련한 이들을 깨우치나이다.